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힐링 프로그램·반값 이벤트

신지면 신지명사십리 해변 7740㎡ 규모

해수 등 16개 치유요법 시설 만족도 높아

“해수와 해조류 등 16개 테라피실에서 해양 치유하며 힐링하세요”

국내 최초로 해수,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요법을 체험할 수 있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24일 완도군 신지면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문을 열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전체 면적 7740㎡ 규모로 해수, 머드,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을 갖췄다.

1층에는 해수풀과 명상풀 등 5개의 테라피실, 2층에는 건강 측정실을 포함해 머드·해조

류 등을 활용한 11개 전문 테라피실이 들어섰다.

해양치유센터의 대표 시설 ‘달라소풀’에서는 에어 버블 수압 마사지와 수중 노르딕 워킹 등을 통해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통을 해소할 수 있다.

‘머드 테라피’는 완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몸에 바르며 독소 배출, 피부 개선 등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화 해 마사지는하는 프로그램으로 피부 재생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2층에는 해수 풀, 스팀 샤워, 저주파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등 건식·습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건강 측정실에서 체형 분석과 피부 상태 측정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 받는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문화치유·기후치유 공공시설을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 2층 프로그램은 모두 현장 발권과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느껴보길 바란다”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시설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가 24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에서 개관했다. (사진=완도군 제공).



해남군, 풀무원과 농수특산물

상품개발 업무협약 체결

해남산 남도마늘 100% 신제품 출시

해남군과 풀무원은 해남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풀무원 천영훈 영업에프유대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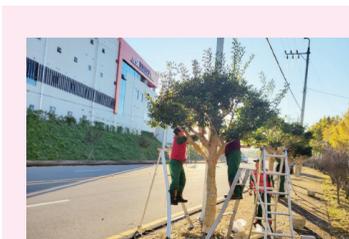
협약에 따라 해남군과 풀무원은 해남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풀무원에서는 해남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상품화 및 협력 사례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남군은 공동홍보 및 협력사업 발굴, 원료 농산물의 품질 유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풀무원에서는 해남산 남도마늘을 제품화한 ‘풀무원 국산 다진마늘 땅끝 해남산 100%’ 상품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포장재에 해남군 상징물과 ‘해남산’을 알리는 문구가 표기된다.

해남 일원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대부분 남도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쪽이 크고, 매운맛이 덜해 생식용이나 양념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겨울철 한파 대비 가로수 월동준비

탐진강 주변 후박나무·산단로 중앙분리대 황금사철 띠녹지 구간 등

장흥군은 올겨울 한파 및 제설작(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한 가로수목 월동작업을 이달 15일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동준비는 겨울 추위에 약한 수목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탐진강 주변 후박나무, 산단로 중앙분리대

장흥=김도영기자

“강진만 생태공원을 월드클래스 국가정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 한자리에...총 731억원 투입 명소화 박차



강진군이 지난 21일 강진만 생태홍보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토론회를 가졌다.

‘강진만 생태공원을 월드클래스 국가정원으로 조성합니다.’

강진군이 지난 21일 강진만 생태홍보관 2층에서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 남수한 부장, 동국대 조경학과 홍광표 명예교수, 나사렛대 스마트그린도시산업융합

전공 박미옥 교수 등 조경, 생태, 정원 분야의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해 온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기본구상 수립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강진군은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도비 포함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6월에 준공하고 지방정원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원 운영실적 3년, 조성면적 30ha, 5가지 테마 구성까지 총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단계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행정적, 강진만의 고유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정원산업을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경제적 요소 등 복합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하기에 강진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진만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부각시켜 강진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해 강진군은 지난 2015년부터 강진만 생태공원에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르고니와

짙둥어 등 자연생태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 설치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하고 쉴 수 있는 생태놀이터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했다.

자연거도로와 강진만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등도 지난 2022년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5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진만에 서식하는 생태계들을 전시하고, 4D가상체험시설과 실내탐조대 등이 들어서는 강진만 생태체험관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탄력 및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제방 숲과 환경교육 시설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강진만 생태계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어린이 놀이공원 및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인 도보다리 설치 등 강진만 생태공원에 총 7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친환경 생태 관광지의 집약체로 계속해서 진화 중인 강진만 생태공원은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진군 관계자는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